



"말씀 · 기도 · 감사의 삶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023년 9월 17일 / 제603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령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흥순미 제1독서 이주일 제2독서 유연호 / 입당 283 봉헌 213, 512 성체 177, 특송 파견 285
Narrator Andrew Lee 1st Reader Teresa Lee · 조재우 2nd Reader Noah Joo · 최지혜

입당송 | 시편 119(118),137,124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1독서 | 지혜 3,1-9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2ㄷ-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겍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로마 8,31-39

복음환송 |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 루카 9,23-26

영성체송 |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9월 17일	주일학교 개학	Fr. John
9월 24일	주일학교 NO	영어미사 없음
10월 1일	주일학교 YES	Fr. Jim
10월 8일	주일학교 YES	Fr. Gerald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들 합니다. 오랜 습관을 버리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1787년 경기도 광주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이광현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머리가 좋고 유능하였지만, 자제력이 부족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른 살에 결혼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방탕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천주교 신자에게 교리를 전해 들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젊은 시절 방탕하셨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본받기로 결심하고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끊었고, 홀로 묵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좀처럼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동생을 입교시키면서 그의 집은 천주교인들을 위한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병자들을 돌보며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1839년 체포된 어느 예비 신자의 남편이 밀고하여 이광현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그의 아내 성 권희 바르바라, 그리고 17세 된 딸 성 이 아가타와 어린 아들 두 명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성인은 혹독한 심문을 받으면서도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의 신앙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느님은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졸들은 성인의 딸인 이 아가타에게 그 부모가 이미 배교하여 석방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배교를 강요하였으나 이 아가타는 “제 부모가 배교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간에, 저희와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하느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동생 성 이광렬 요한을 포함하여 한집안에서 네 명의 순

교자가 목숨을 바쳐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3-24)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순교 정신을 본받자는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순교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로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평소의 모든 언행이 하느님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빠지거나 사랑과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은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통회 기도에서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였다고 고백한 것도 같은 의미에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지 않아야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내가 언제 하느님을 배반하는 언행을 하게 되는지 성찰하면서 순교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과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민화교실 전통민화 /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가문비나무의 울림

바이올린 연주가의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는 지금껏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소울메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짝꿍,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나무를 깎아서 울림통을 만들고, 그 위에 현(string)을 묶어 활(bow)로 마찰을 일으켜 소리를 내는 현악기입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울림통에 사용되는 나무인데요, 바로 '가문비나무'입니다.

가문비나무는 아주 높은 고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나무와 달리 위쪽 부분에만 가지가 자라는 조금은 신기하게 생긴 나무입니다. 고지대의 어둡고 컴컴한 산속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윗부분의 가지들만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빛을 전혀 보지 못하는 아래쪽 가지들은 스스로 땅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햇빛을 보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가문비나무의 그 아래 부분이 신기하게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의 소재가 됩니다. 그 이유는 고지대의 척박한 환경에서 몇백 년이 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무가 자라는 동안 나이테가 매우 촘촘해지고, 세포벽도 단단해지면서 악기로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문비나무가 자라는 환경은 척박함 그 자체입니다. 나무 스스로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 버리며 생존해야 하는 처절한 몸부림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전혀 다른 축복으로 이어지고 새로움으로 탄생합니다. 고된 역경과 힘겨운 고난 속에서 자란 단단한 밀도를 가진 나무만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으로 재탄생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가문비나무의 이야기는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탄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제 마음은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굴곡과 아픔, 역경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햇빛을 보지 못해 나뭇가지를 땅에 계속 떨어지지만 빛을 향하여 위로 뻗어나가는 가문비나무처럼 말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이처럼 컴컴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단단해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빛에 오로지 의지하며 용기와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우리도 바이올린과 같은 천상의 아름다운 울림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창세 15,1)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거나 당장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마음속이 답답하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오로지 주님 말씀의 빛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묵묵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김수연 클라우디아 바이올리니스트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작성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직통: 510-283-6310 CELL: 510-776-5856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AIDEN KIM 에이든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TIM MCGUIRE TEAM</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 9월 주요 전례 및 행사 일정

- 9월 17일(주일): 한국 순교자들 대축일(경축 이동), 주일학교 개학
- 9월 24일(주일):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9시, 한국어·영어 통합 미사)
- 9월 26일(화) - 10월 13일(금): 평일미사 없음 (본당 신부 휴가)
- 9월 26일(화) - 10월 10일(화): 사무실 휴무(사무장 휴가)

■ 본당 신부 휴가 일정

- 기간: 9월 26일(화) - 10월 14일(토)
위 기간 중에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12시 10분 CCOP 미사 참례 권장)
- 주일 교중미사는 몬트레이 이종욱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님(10월 1일)과 산호세 정재훈 대건안드레아 신부님(10월 8일)께서 집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 부모님과 함께 하는 주일학교 개학 첫날(9/17) 일정

- 오전 9시 30분: 오픈 하우스(부모님·학생 함께 참여)
•장소: K/1학년(Room B), 첫영성체반(Room A), 3-5학년(야외), 6-7학년(야외), 견진반(Office)
- 오전 10시: 반별 교리/활동(부모님은 별도 모임)
- 오전 11시: 주일학교 축복 미사 (김현국 신부님 주례, 부모님·학생 함께 참여)
- 등록 신청서: www.tvkcc.org/sundayschool20232024/
- 문의: Anthony Toledo (510-828-0841, blade_fighter@yahoo.com)
John Lee (925-759-0194, eastbayjohnlee@gmail.com)

■ 트라이밸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9월 월례 모임

-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 일시: 9월 17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Nielsen Park(성당 옆 공원)

■ 제2회 축구 기어 드라이브

- 남미 피난민 협회 이스트베이(CRECE)의 오클랜드 저소득층 축구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행사
- 후원 방법: 새것 또는 깨끗이 사용한 축구 용품 (공, 축구화, 유니폼, 기타 악세사리)
기부금(a check made payable to: CRECE)
- 기간: 9월 17일, 9월 24일 한국어·영어 미사 후
- 장소: 대성당 앞 테이블 혹은 바구니
- 문의: Anna Lee(925-487-6055)

■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일정 및 신청 안내

- 일시: 9월 24일(주일), 오전 9시(한국어·영어 통합 미사)
- 신청: 9월 21일(목)까지, 사무실(당일 생미사 봉헌 없음)

■ 2023 - 24년 예비 신자 교리반 모집

- 첫 모임: 9월 24일(주일), 오전 11시
- 교리 기간: 9월 24일(주일)부터 2024년 3월 24일(주일)
- 세례식: 2024년 3월 30일(토), 파스카 성야 미사 중
- 문의 및 신청: 사무실(925-871-9746)

■ 요아킴·안나회 10월 정기모임

- 일시: 10월1일(교중미사후), 오전 11시 - 오후 2시
- 장소: Bray Commons 3300 Finnian Way Dublin, CA 94568 (Dublin & Keegan St. Dublin Kaiser 병원 근처)
- 회원 모두 참석하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 친교 공간 운영 안내

- 친교와 만남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 일시: 10월 1일(주일)부터 매 교중미사 후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 장소: 체육관 입구 오른쪽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864	\$555	\$860	\$35	\$35	\$3349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변태근(9), 이예진(9,10), 이태원(8), 최두은(9), 홍성호(9,10), 황희숙(9)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변태근(9), 이태원(8), 홍성호(9,10)

■ Bishop's Appeal

변태근(9), 이태원(8), 홍성호(9,10)

■ 도넛봉헌 문지영 올리안나 / 이현정 세실리아 / 정혜원 스콜라스티카 / 최두은 세라피나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혜영 세실리아·최종원 다니엘 가정(루카 7)
박형은 올리안나 가정(루카 3)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